

한중Zine

INChinaBrief

Vol.340 2017.06.12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본 한중·북중 관계

작 성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JSPS 특별연구원
허재철 (her.jaechul@hanmail.net)

목 차

1.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와 한중·북중 관계
2. 한중·북중 관계의 변천
3. 시진핑 체제의 對한반도 정책과 한중·북중 관계
4. 종합 및 함의

- 경제력을 바탕으로 굴기(崛起) 중인 중국은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영향력 확대 중
-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있어서 중국의 외교적 입장과 역할에 대한 관심 급증
-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이에 따른 한중·북중 관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작업
- 국제정치학 영역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한중·북중 관계를 고찰

1.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와 한중·북중 관계

1)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

■ 개요

- 외교 활동 중에서 국가의 지도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주목
- 1955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지도자가 외국의 지도자와 진행한 정상회담을 조사하여 네트워크로 나타냄
- 여기서 지도자라고 함은 중국의 경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정의했고, 외국의 지도자는 대통령과 총리, 국왕,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일 경우 집권당의 총서기 또는 주석까지 지도자의 범위에 포함함
- 정상회담에 대한 데이터를 수치화하기 위해, 중국의 지도자가 외국

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경우 ‘3’으로, 외국의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경우에 ‘1’로 코딩(coding)함.¹⁾
- 이는 중국의 지도자가 직접 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적극적인 외교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인 <중국연구소>가 1955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중국연감(中国年鑑)》과 중국의 <세계지식출판사(世界知识出版社)에서 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 대사기(中华人民共和国外交大事记)》 1, 2, 3, 4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정책연구소(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政策研究司)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외교사 편집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外交史编辑室)이 1987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중국외교(中国外交)》를 활용함
-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에 의해 진행된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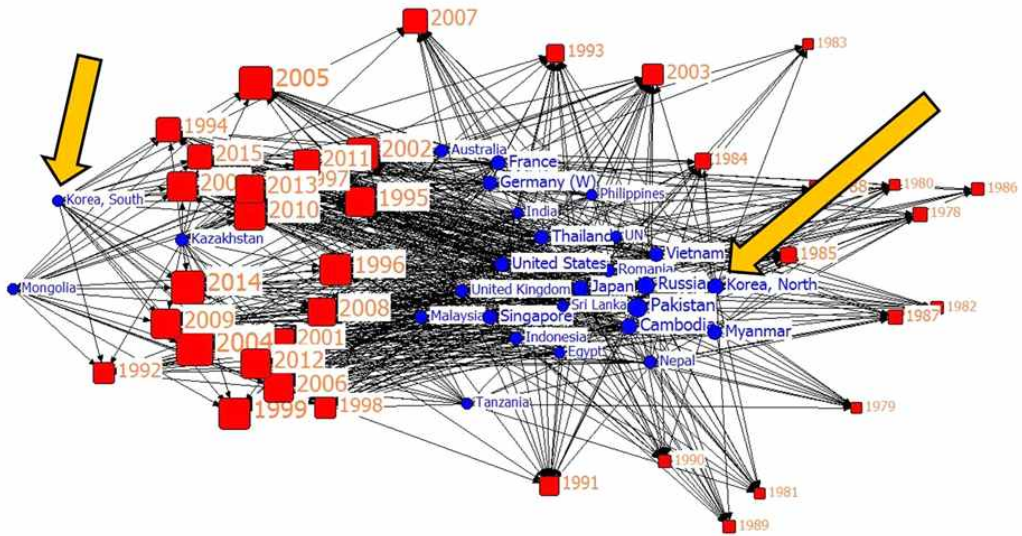
1)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한 중국 지도자가 회의 개최지에서 외국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진행할 경우도 ‘1’로 코딩함

2)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본 필자가 ‘일본 현대중국학회 2017년도 칸사이부회 대회’(2017년 6월 3일, 도시사대학)에서 발표한 논문 “中国の外交ネットワークに関する分析：中華人民共和国の建国以後に行われた首脳会談を中心に(중국의 외교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신 중국 이후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를 참고하기 바람

2) 네트워크 속의 한국과 북한

■ 네트워크 속 한국과 북한의 위치

그림 1 |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 속에 나타난 한국과 북한



출처: 허재철(2017)

- <그림 1>은 중국의 정상회담 네트워크 중에서 연결정도(degree)가 20 이상인 관계만을 나타낸 것임
- 정상회담을 많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할수록 네트워크 속 노드의 크기가 크며 네트워크의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게 됨
- 화살표(노란색)는 한국과 북한이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 속에서 나타난 위치를 표시해 주고 있음
- 한국과 북한은 모두 연결정도가 20 이상인 네트워크에 나타난 것임

로 보아,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외교 파트너임을 알 수 있음

- 한국이 네트워크의 왼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은 지난 60여 년의 중국외교에 있어서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 중국의 중요한 외교 상대국이 되었음을 말해 줌
- 반면, 북한이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가깝게 위치한 것은³⁾ 60여 년에 걸쳐 중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외교 상대국이었음을 나타냄
- 하지만, 한국보다 1990년대 이후의 노드들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90년대 이후에는 한중관계에 비해 북중관계가 소원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주요 외교 상대국

- <표 1>은 투-모드 네트워크인 정상회담 네트워크를 국가로만 구성된 원-모드 네트워크로 변환 한 뒤, '표준화 액터 연결정도 중심성'(standardized actor degree centrality)을 기준으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상위 20위인 국가들을 시기별로 나열한 것임
- 표에 나타난 국가들은 각 시기별로 중국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주의할 것은 각 시기별 동일 순위의 국가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중국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해석할 수 없음. 이는 순위는 같지만 연결정도 중심성(nDegree)이 다르기 때문임

3) 연결정도를 제한하지 않은 전체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는 북한이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남

표 11 시기별 중국의 주요 외교 상대국 (기준: 정상회담 네트워크의 nDegree)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대	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1	Myanmar	North Korea	Russia	Russia	Russia
2	Cambodia	Japan	Japan	Germany	Kazakhstan
3	Pakistan	Pakistan	Thailand	Kazakhstan	Germany
4	USSR	Thailand	France	South Korea	Belarus
5	Vietnam	United Kingdom	Vietnam	United States	Mexico
6	Nepal	Singapore	Germany	United Kingdom	India
7	SriLanka	Malaysia	Cuba	Cambodia	Peru
8	North Korea	Cambodia	South Korea	Japan	Vietnam
9	Indonesia	Italy	Singapore	Indonesia	France
10	India	Denmark	Malaysia	Italy	South Korea
11	Somalia	Iran	Kazakhstan	Pakistan	Singapore
12	Afghanistan	Norway	Pakistan	Laos	United States
13	Albania	Romania	Ukraine	North Korea	Indonesia
14	Egypt	Bangladesh	Canada	Turkmenistan	SriLanka
15	Guinea	Sweden	United States	Australia	Denmark
16	Laos	Egypt	Argentina	Brazil	Romania
17	Tunisia	USSR	Australia	France	Serbia
18	Ghana	France	South Africa	Thailand	South Africa
19	France	Nepal	Uzbekistan	South Africa	Malaysia
20	Mali	Myanmar	Egypt	Vietnam	Pakistan

출처: 허재철(2017)

- 지도자 사이의 외교적 접촉이 빈번할수록 중요한 외교 상대국이라고 가정할 경우, 북한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에 있어 중국의 중요 외교 상대국이었으며, 특히 덩샤오핑 시기에는 동일시기 다른 나라에 비해 지도자 사이의 접촉이 가장 활발했음. 하지만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자 북한과 중국 사이의 지도자 접촉은 감소하고 순위도 뒤로 밀려남
- 한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 전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에는 중국의 중요 외교 상대국이 아니었음. 그러나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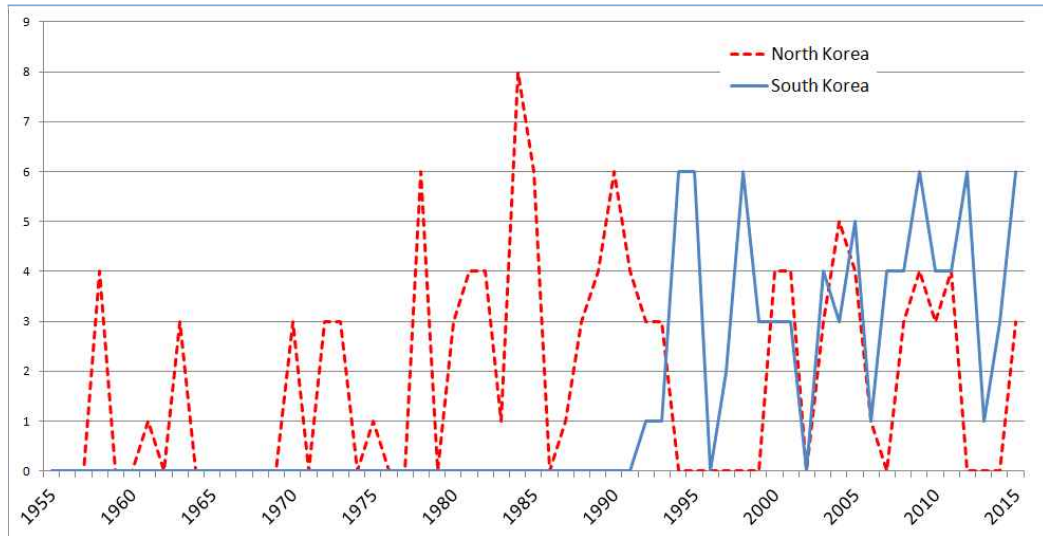
는 지도자 사이의 외교 접촉이 활발해지며 중요한 외교 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에서 모두 주요 외교 상대국 순위 10위 안에 들어감

- 지도자 사이의 정상회담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있어 한국과 북한의 중요도가 역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한중 · 북중 관계의 변천

1) 한중 · 북중 정상회담의 실시 추이

그림 2 | 한중 · 북중 지도자 사이의 정상회담 실시 추이 (단위: 정상회담 지수, 점)



출처: 필자작성

- <그림 2>는 1955년부터 2015년까지 한중 · 북중 지도자 사이에 실시된 정상회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은 전체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던 연도와 없었던 연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 다만, 1960년대 중후반에 장기간에 걸쳐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1960년대 초반 최상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중 관계가 1960년대 중후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의견 차이와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인해 대립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한편,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1992년 수교 이후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던 연도와 없었던 연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흥미로운 사실은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1999년까지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은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점임
- 2000년 이후, 한중, 북중 정상회담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진행되었지만, 한중 사이에서 더욱 활발한 정상외교가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남

2)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변천과 한중·북중 관계

■ 마오쩌둥(毛泽东) 시대

- 마오쩌둥 시대의 국가 핵심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 가능
 - 첫째, 타이완에 대한 평화 통일 달성과 부강한 신중국 건설
 -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현과 공산당 일당 독재 유지, 사회주

의 건설과 관련한 계급투쟁, 영구혁명(permanent revolution), 신민주주의 이념 실행

- 셋째, 이념과는 별개로 외국과 평화공존 및 상호 협력 추구
-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필요할 경우 대외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음을 나타냈고, 실제로 국지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한 바 있음

-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은 이러한 국가 핵심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업무를 처리하는 원칙으로서 ‘평화공존 5원칙(和平共处五项原则)’을 내세움

- ‘평화공존 5원칙’이란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을 뜻하며, 이것이 한반도에 대한 대외정책의 원칙을 이룸

- 이와 함께, 냉전시기에 놓여 있던 마오쩌둥 체제는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경제적으로 전력을 다해 지원했지만, 한국은 미 제국주의의 종속국으로 인식하며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적대국으로 취급

- 한국 역시 중국을 한반도를 침략해 남북통일을 가로 막은 공산 침략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양국의 교류는 줄곧 단절됨

- 한편, 북한과는 1961년 7월 11일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을 체결하며 최상의 동맹관계 형성

- 본 조약의 핵심은 제2조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것을 약속하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특정 국가나 몇몇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고, 이로 인해 전쟁 상태가 될 경우, 본 조약의 다른 일방 국가는 즉시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해야 한다.”

■ 덩샤오핑(邓小平) 시대

-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이념과 계급투쟁 중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실용적 경제개발과 개혁개방으로 국가 운영 방향을 전환
- 국내 정치개혁과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건설,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한 덩샤오핑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대외노선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
-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자주독립과 평화공존 5원칙을 대외관계의 원칙으로 계승하면서도 경제건설에 필수적인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섬
- 하지만 덩샤오핑 시대에서도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당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三非三不願”으로 요약될 수 있음
 - “三非”란 한반도 非핵화, 남북한 사이의 非전쟁, 북한정권의 非붕괴를 의미
 - “三不願”이란 세 가지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반도가 미국과 밀착하는 것, 한반도가 중국과 경쟁관계에 들어가는 것, 남북한이 민족주의로 뭉치는 것을 말함
-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 군사관계는 그대로 둔 채 경제교류의 필요성만을 강조함

■ 장쩌민(江泽民) 시대

- 장쩌민 시대의 국가목표는 경제발전의 지속과 개혁개방의 심화로서 덩샤오핑 시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음

- 이에 따라 외교 분야에서도 1980년대 중국의 외교방침으로 자리 잡은 자주독립 원칙과 평화공존 5원칙이 그대로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을 이룸
- 한편, 경제발전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과 세계적으로 냉전 구도가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1992년 한국과 국교를 맺고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
- 하지만 한국과의 국교 수립이 중국의 對한반도 외교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음
 - 장쩌민 시대의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필수적인 주변정세 안정과 직결된다고 인식
 - 이러한 기본 인식 아래, 북한과는 기존의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는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對한반도 정책을 추진
 -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 1992년 수교 당시 설정한 ‘우호협력 관계’를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지만, 군사,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음

■ 후진타오(胡锦涛) 시대

- 후진타오 시대의 국가목표도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대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았음. 즉, 안정된 국제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노선도 “평화와 발전, 협력을 기치로 독립, 자주,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을 적극 도모한다”는 점이 강조됨
 -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제기된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화 발전’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외교는 기존의 ‘도광양晦(韬光养晦)’에서 나아가 ‘유소작위(有所作为)’를 구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즉, 중국이 개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
- 외교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정 정도의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도 변화를 불러옴
 - 한국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가 빠르게 격상됨
-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의 의장국을 맡음으로써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등으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됨
- 그 결과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존의 ‘三非三不願’에서 ‘전쟁방지(不戰)’, ‘동란방지(不亂)’, ‘비핵화(無核)’로 조정되고, 한반도의 비핵화보다는 안정에,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정권의 붕괴 방지에 정책적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3. 시진핑 체제의 對한반도 정책과 한중·북중 관계

■ 시진핑(习近平) 시기 중국외교의 새로운 개념들

● 의리관(義利觀)

- 2013년 8월 16일 '중공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 관공실(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辦公室)' 주임 양제츠(楊潔篪)는 『구시(求是)』에 “새로운 정세 하에서의 중국 외교 이론과 실천 혁신(新形勢下中國外交理論和實踐創新)”이라는 글을 게재. 여기서 양제츠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리관을 언급. 그는 “의(義)와 ‘리(利)’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정수로서, 개인의 처세를 인도하는 중요 원칙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를 지도하는 중요 원칙이기도 하다”고 언급
- 2013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당 중앙이 개최한 ‘주변외교공작 좌담회(周邊外交工作座談會)’에서 시진핑은 “이익의 공통점과 교착점을 찾고 올바른 의리관을 견지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발언

●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 중·미 양국의 세계적 지위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양국 사이의 경제력 차이도 한층 더 축소. 이는 역사상 신흥 대국과 기존의 강대국 사이에 대결과 전쟁이 다수 발생했던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을 상기
- 중국은 중·미 양국 사이에 역사상 대국 관계의 숙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적극 제안
-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 지위에 도전할 생각이 없고,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상호협력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양국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친성혜용(親誠惠容)
 - 시진핑 체제는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을 편안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주변외교 전략을 이어가면서도, 친성혜용(親誠惠容)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강조하며 이를 주변외교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
 - △친(親)은 지리적 접근성과 인적 친근함, 문화적 공통성위에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성(誠)은 마음을 다해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존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誠實), △혜(惠)는 이익 공동체의 건설과 협력 방안의 모색을 통해 주변국가와의 호혜 및 공영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 △용(容)은 개방성과 포용성,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의미

■ 시진핑(习近平) 체제의 對한반도 정책

- “주변(국가)은 중국이 근심 없이 생활하고 발전·번영하기 위한 기초”이며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양호한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말처럼,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
- 이러한 인식 위에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경제적 호혜와 정치적 선린, 안보적 협력이라는 방향을 기본으로 對한국 정책을 전개. 2014년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한중 FTA을 체결하는 등 역대 최상의 관계를 형성
-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中方始终坚持朝鲜半岛无核化, 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 坚持通过对话谈判解决有关问题)을 3대 원칙으로 고수.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등의 고강도 대북압박을 견제하고, 6자회담 재개를 줄곧 주장

■ 시진핑 체제 중국 외교의 딜레마

- 세계적 대국으로서의 위상
 -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격히 국력이 신장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대국으로 성장
 - 세계적 대국으로서 성장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적 현안과 관련하여 대국에 걸 맞는 책임감과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음
- 적극적 국익 추구
 - 스스로를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
 - 이를 위해 최근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로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진출 및 주변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 하지만 세계적 대국으로서의 위치와 적극적인 국익 추구 사이에서 끊임없는 모순이 발생
-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이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는 점차 악화
 -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의 대표적 관방 언론들이 서로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음
-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말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자 한중관계도 급격히 냉각되는 사태 발생.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까지 겹치면서 한중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

4. 종합 및 함의

-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한중 및 북중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북한은 모두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외교 파트너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사이의 지도자 교류는 활발해진 반면, 북중 사이의 지도자 교류는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지도자 사이의 정상회담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외교에 있어 한국과 북한의 위치가 역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관계가 매우 소원해지고 있음이 정상회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남
- 이는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계속되는 핵실험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시진핑 체제의 중국 외교가 안고 있는 모순과도 연관되어 있음. 즉, 책임감 있는 세계적 대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과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 체제의 중국 외교는 세계적 대국으로서의 입장으로 점차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중 관계는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고 있음
-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한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2021년 재연장을 못하고 수명을 다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한중 관계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 외교가 직면한 딜레마와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 對중국 접근이 맞물리면서 극심한 롤리코스터 현상을 경험한 바 있음. 게다가 최근에는 사드 갈등까지 겹치면서 한중 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가장 큰 시련에 봉착해 있음
- 새 정부가 출범한 한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게 대북압박을 강요하기보다는, 중국외교가 봉착한 딜레마를 이해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관계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동시에, 한중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문제는 ‘북한 위협’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북미 관계, 더 나아가 미중 관계라는 넓은 시야 속에서 현명한 답안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함

참고자료

- 곽기영(2014),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울: 청람.
- 박종철(2009), “1960년대 중반의 북한과 중국: 긴장된 동맹”, 『한국사회』, 10(2).
- 서상문(201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역사와 현실”, 『전략연구』, 63.
- 서정경(2014),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본 한중관계의 현주소”, 『중국학연구』, 70.
- 차창훈(2014),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제기에 대한 일 고찰: 내용, 배경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4).
- 허재철·임상훈(2015), “시진핑 체제 중국외교의 의리관(義利觀)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의리관의 내용과 외교영역에서 제기된 배경 및 그 특징을 중심으로”, 74(0).
- 허재철(2017), “中国の外交ネットワークに関する分析: 中華人民共和國の建国以後に行われた首脳会談を中心に(중국의 외교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신 중국 이후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일본 현대중국학회 2017년도 칸사이부회 대회, 도시사대학) 발표문.
- 张清敏(2014), “减少互信赤字, 构建中美新型大国关系”, 『중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제2회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人民網, “外交工作要堅持正確義利觀 有原則講情誼講道義,” (2013년 10월 26일) <http://politics.people.com.cn/n/2013/1026/c1024-23332931.html> (검색일: 2017-05-13).
- 邢丽菊(2014), “从传统文化角度解析中国周边外交新理念 - 以“亲、诚、惠、容”为中心”, 『国际问题研究』, http://www.ciis.org.cn/gyzz/2014-05/30/content_6946420.htm (검색일: 2017-05-12).
- 楊潔篪, “新形勢下中國外交理論和實踐創新,” (2013년 8월 16일) http://www.qstheory.cn/zxdk/2013/201316/201308/t20130813_259197.htm (검색일: 2017-05-15).